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윤지수(Ji-Su Youn)*, 현병환(Byung-hwan Hyun)**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 양자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두 정(+)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Keywords :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효능감, 창업의도

* 윤지수,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석사과정, yes012474@naver.com,

** 현병환(교신저자),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hyunvv@gmail.com, 042-280-4181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글로벌 혁신교육의 핵심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설정하고 전세계에 창업교육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전략으로써 창업과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어젠다로 설정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중소기업청, 2010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미래부·교육부·중기청 합동, 2013년), 벤처·창업 붐 확산(관계부처 합동, 무역투자진흥회의, 2015년) 등 3차례의 대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학교가 2012년도 124개교에서 2017년 504개교로 확대되었고, 대학생 창업강좌가 2012년도 133대학 965개 강좌에서 2015년 301개 대학 3,534개 강좌로 급증하였고 창업 동아리 역시 2012년도 1,222개 18,027명에서 2015년 4,070개 38,762명으로 증가하였다(중소기업청, 2016). 또한 정부부처 등 공공영역에서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계층별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은 총 94개 사업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년CEO 특강,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활동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청소년 비즈쿨 페스티벌 개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재 개발·보급, 온·오프라인 직무연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서는 창업선도대학,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등이 대표적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사업화, 보육공간 지원 등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시니어 창업스쿨 교육을 통해 창업교육과 창업보육 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에 실패한 예비 재창업자를 위한 재도전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6).

위와 같은 정부정책 및 창업지원제도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 등 청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창업교육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가정신, 창업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업가정신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업의 혁신, 경쟁우위, 수익성, 성장성 등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어 핵심적 요인으로 연구하고 있다(Miller, 1983; Zahra &

Covin, 1996, Baron & Shane, 2005). 1990년대에 들어서 선행연구들의 주제를 살펴 보면, 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벤처기업의 조직적 특성, 기업가의 인적자본, 사회적 기업가정신, 창업교육 등 다양한 기업가정신 연구 분야가 형성되어왔다(김영환, 2013). 최근에 들어 창업자 개인특성, 환경적 특성과 같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강재학, 2015).

창업효능감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가정신과의 영향관계 연구와, 기업가정신과 성과변수간의 관계에서 주로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서 연구들이 논의되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 이론과 진로발달 이론을 접목한 개념으로 진로와 관련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Taylor & 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위를 잘 수행하기 되며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된 체험 활동을 의미하는데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으로 노력하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을 진로준비 행동이라 한다(김수리, 2004).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은 진로결정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선행된 연구들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문정, 2014). 이를 적용할 경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 창업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창업의도 및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이 실제 창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논문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행동변화 과정 또는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나 실제 기업가정신 교육의 제도개선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양 관계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양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를 선정한 후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고 이를 위해 국내외 각종 학술지, 간행물, 저서, 학위논문 등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계·검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한 실증분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신뢰성 및 타당성분석, 상관관계분석, 다

중회귀분석 등을 통해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정신

1) 기업가정신의 개념

기업가는 일관성 있는 하나의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초기 기업가정신 연구자인 슈페터는 경제주기 상에서 경기하락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것은 ‘신 결합’으로 정의되는 기술혁신을 제고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chumpeter, 1934).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업가정신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경쟁자들에 비해 보다 현명하고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Leibenstein, 1978), 불완전하고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시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능력(Kirzner, 1973), 현재의 통제된 자원보다 기회인식에 따라 주도되는 것(Stevenson, Roberts, and Grousbeck, 198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on & Shane(2005)은 기업이 새로운 무엇을 창출하기 위해 이를 탐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였고, Gartner & Baker(2010)는 개인들이 기회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기업수준을 끌어 올리는 과정으로 인식하였다(Czop & Leszczynska, 2011). 따라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기회를 인식하고 비전, 변화, 창조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개념은 현상을 바라보는 학문적인 입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경제학에 기반을 둔 관점에서는 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기반한 위험을 내포한 기회와 기술혁신에 중점을 둔다. 이에 반해 경영학자들은 새로운 조직의 출현, 새로운 자원의 조합과 활용 등 조직과 전략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정의한다. 또 다른 기업가정신 정의에 있어 기업가의 특성은 주로 심리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기업가가 일반인 혹은 다른 관리자들과 다른 심리적 특징을 가졌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기업가의 성취욕구, 위험감수성, 통제위치, 혹은 혁신성 등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경우가 많다.

한편, 기업가정신을 단순히 개인적 기업가의 행동이나 특성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조직내부의 일반구성원들이나 조직의 하위 부서 또는 조직 전체수준의 경영활동 및 성과를 포함하는 조직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이 있다. 이는 경영학적 접근법으로 논의되거나 사내 기업가정신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tevenson & Jarillon, 1990; Zahara, 1993; Bruce, Barringer, & Bluedorn, 1999). 이들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조직의 출현이나 조직의 혁신적 경영관리과정 또는 성장성 등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사내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등의 환경적, 조직적 맥락과는 분리해서 기업가정신의 본질은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포괄적인 의미로 정의하여 사용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벤처창업과 포착의 과정이며 생존하기 위한 제도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Carland, Hoy, Boulton, and Carland, 1984; Sexton and Bowman, 1985). 즉, 기업가정신은 상호작용 과정이고 기존 조직 내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가적 활동은 창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이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이다(Davidsson and Wiklund, 2000; Venkataraman, 1997). 여기서 새로운 사업을 구현하는 조직은 어떤 형태이든 구매받지 않고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대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사업체를 만들거나 조인트 벤처 형태도 모두 포함한다(Van de Ven & Engleman, 004).

최근에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업가정신의 정의는 Stevenson(1983)과 Timmons(1994)가 제시한 것이다. Stevenson(1983)은 기업가정신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자원에 구매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고, Timmons(1994)는 기업가정신을 기회에 초점을 두고, 총체적 접근방법과 균형 잡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추론·행동방식으로 정의하여 기업가정신이 접근방법이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방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2)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 연구를 보면, 기업가정신 개념적 정의와 같이 기업가정신 구성요소에 대한 유형화가 다양하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Covin & Slevin, 1991; 박상용·김연정, 2004)과 성취욕구, 위험감수 성향, 내적 통제위치, 모호성 감수성향 등(Gartner, 2010; 조준희·김찬중, 2014),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선호, 통제위치 등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3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혁신성(Innovativeness)

혁신성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어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도입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혁신성 혹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이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Miller, 1983). 혁신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아이디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의 질서, 공식에 도전을 주는 스킴(scheme)이면서 기존의 아이디어들의 재조합이고 관련된 개개인에 의해서 새롭게 인지되는 고유한 접근 방법이다(Van de Ven, 1986). 혁신적인 과정은 제도적인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거래

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의 과정 측면을 강조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유용한 제품, 유용한 서비스 및 운영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Drucker(1985)는 ‘기업가는 변화를 탐구하고 이에 대응하며 변화를 기회로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경영혁신은 기존의 자원이 부를 창출해내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활동으로 이것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West & Farr(1989)는 혁신을 거시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혁신은 혁신에 따르는 예상되는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혁신으로 인한 예상이익은 기업의 수익성과 같은 재무적 이익은 물론 혁신을 받아들이는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같은 상징적인 이익도 포함하며 예상이익으로 도움을 얻는 대상은 혁신을 하는 조직과 조직내의 구성원은 물론 조직내의 집단 또는 조직의 환경이 되는 이해관계자 집단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ovin & Slevin(1991)은 시장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제품의 디자인, 시장조사,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활동으로 보았다.

Damanpour & Evan(1994)은 혁신을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고 기술적 혁신과 관리적 혁신으로 구분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공정, 서비스의 운영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하며 관리혁신은 조직의 사회적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혁신을 개인이나 조직의 기능에 관련된 규칙, 절차, 구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진취성(Proactiveness)

진취성이란 새로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가의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경쟁자 보다 먼저 시장변화에 앞서 행동하는 속성이다. 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에서 진취성은 경쟁의 공격성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즉, Covin & Slevin(1990)은 진취적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공격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였고, Lumpkin & Dess(1996)는 진취성을 시장기회를 추구하고 시장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사에 대해 공격적으로 도전하고 먼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하는 선발자 우위는 시장기회를 자본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요한데 이러한 맥락에서 진취적인 기업가는 다른 경쟁자보다 먼저 신제품과 생산 및 관리기법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시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Lumpkin & Dess(1996)는 시장 내에서 상대적인 경쟁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적극적 경쟁의지와 경쟁자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 그리고 경쟁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높은 강도로 도전하려는 자세를 모두 포함한 것이 진취성이라 설명했다.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 행동이다. 진취성이 높은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나 경쟁자들에게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먼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관리적 기법 등을 시도한다.

이춘우(1999)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는 경영활동을 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아내고 포착하는 경영활동이라 말로 진취성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진취성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며, 선제적 기술능력과 지속적 신제품 출시, 새로운 서비스 제공과 같은 진취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김상훈, 2014). 박기용(2009)의 경우 진취성을 사전 대응성으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장수요에 부응하는 경영활동으로 나타내었다. 조연성·원동환(2010)의 경우 목표완수에 대한 의지와 결과에 중점을 둔 평가를 선호하는 정도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성과 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에서의 진취성에 대한 정의는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진출 및 주도적인 역할을 새로운 경영활동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안모색과 대응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위험감수성(Risk-Taking)

위험감수성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기업가정신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위험감수성이란 불확실한 환경에서 사업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위험선호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가의 성향을 의미한다. 이는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위험을 감수하려는 기업가의 의지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감수성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불확실한 환경 상황 하에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정신에 중점을 둔다.

위험감수성은 사업성공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과감하게 활동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으로, 낮은 위험의 프로젝트보다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여 적극적으로 기회를 모색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Covin and Slevin, 1991)을 말한다. 여기서 ‘위험(Risk)’은 무모함과 다른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을 의미하는데, 창업가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바로 이 같이 자신이 원하는 일에 있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들 수 있다. Sexton과 Bowman(1986)는 위험감수성을 불확실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도전하는 의지의 정도로, 위험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조윤희(2013)는 사업의 리스크와 위험성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위험도는 높지만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로써 감수하려는 자세로 위험감수성을 정의하였다. 실제 연구에서도 창업자들이 관리자보다 위험감수 성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Stewart, 2001), 위험감수성은 창업의 성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오(2009)는 기업가 정신을 불확실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하여 불확실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박기용(2009)은 급변하는 환경을 선호하거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으로 불확실한 기업 환경 속에서 기업가들의 행동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위험감수성은 높은 위험의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욕을 지칭한다(Covin & Slevin, 1990). 또한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과감히 도전하려는 의지의 정도로서 위험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 분야에 적용하였으며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된 개인적 효능감을 특별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하였다(Hackett & Betz, 1981). 먼저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주어진 과업 또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갖는 신념을 말하는데, 이는 네 가지 학습 경험 즉, 수행성취, 대리경험, 정서적 각성, 사회적 설득이나 격려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행동을 시작할 것인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할 것인가, 역경에 직면하여 어느 정도 행동을 지속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즉, 진로결정에 필요한 학습의 수행과 만족스러운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Hackett & Betz, 1981; 이은경, 2000; 노윤신, 20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우거나 선택한 목표에 대한 직업적인 과제를 수행하며, 직업관련 정보를 모으거나 자기 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므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쉽게 포기하지만, 반대로 특정과제에서 자기 효능감이 강하면 그 과제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게 되고 행동을 지속하는 시간도 길게 된다(Bandura, 1997).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은 Band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발달 분야에 응용하여 개념화한 것으로 개인의 진로 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이다. 그들은 자기 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언할 때 유용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처음으로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특수한 과제와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능력에 관한 개인의 기대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효율적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최초로 연구했으며 진로결정에 관한 자기 효율성 측정도구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를 개발했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진로계획, 문제해결, 자기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고(이은경, 2002; Betz & Hackett, 1981; Speich, 1987),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Lent & Hackett, 1987), 특정 학문분야, 전공 및 직업의 선택,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 예언력을 갖고 있다. 김민순(2004)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의 미래직업 세계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행동 예언력을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이고(이은경, 2002; Betz & Hackett, 1981; Speich, 1987), 개인이 진로결정이라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Lent & Hackett, 1987), 특정 학문분야, 전공 및 직업의 선택, 수학여행, 그리고 진로의사결정, 진로탐색활동, 진로태도 등과 같은 영역에서 결정적 예측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와 관련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사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McWhirter, 1997; 김민순, 2004).

3.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의 개념은 Bandura(1992)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부터 발전하였는데, 인지적 관점에서 인간 행동의 변화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그 행동을 능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일어나며, 자기효능감은 특별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유발하는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자기효능감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 습득되어질 수 있고(Barbosa, et al., 2007), 이러한 과정에서 습득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열망, 목표, 결정의 수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Zaho et al., 2005). 또한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의 객관적인 존재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평가와 관련된 개념이다(Lee & Bobko, 1994). 즉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간접경험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대리경험, 신체적·정서적 상태나 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데 자신감, 실제 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자기조절 체계, 과제난이도, 생리적 성별 등이다(윤숙녀, 2005).

창업효능감은 심리적 특성 요인의 중요한 변수로 창업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는데(Culbertson et al., 2010), 창업연구에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Boyd & Vozikis(1994)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력과 대체될 수 있는 동일한 개념으로 창업 효능감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 모형에 따르면 의지는 미래 목표 행동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며, 목표 행동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력 등 세 가지 핵심적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jzen, 1991). Boyd & Vozikis(1994)는 인지된 행동 통제력이 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근거에 따라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주장하였다.

4.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도에 관한 초기연구자인 Bird(1988)는 새로운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벤처기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창업의도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의 창업의도 정의를 보면 창업의도를 고도성장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의도(Hmieleski & Corbett, 2006), 장래에 기업가로서 일할 의도(Rantanen, 2013)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창업의도는 창업 행위의 전조(precursor)로 여겨지고 있으며(McGee, et al., 2009), 창업가의 의도는 신설 기업의 초기 전략적 모형판(initial strategic template)을 형성하게 된다(Bird, 1988).

창업의도와 관련된 몇 가지 이론적 모형들이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그중 대표적 연구는 창업행동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 Shapero & Sokol, 1982),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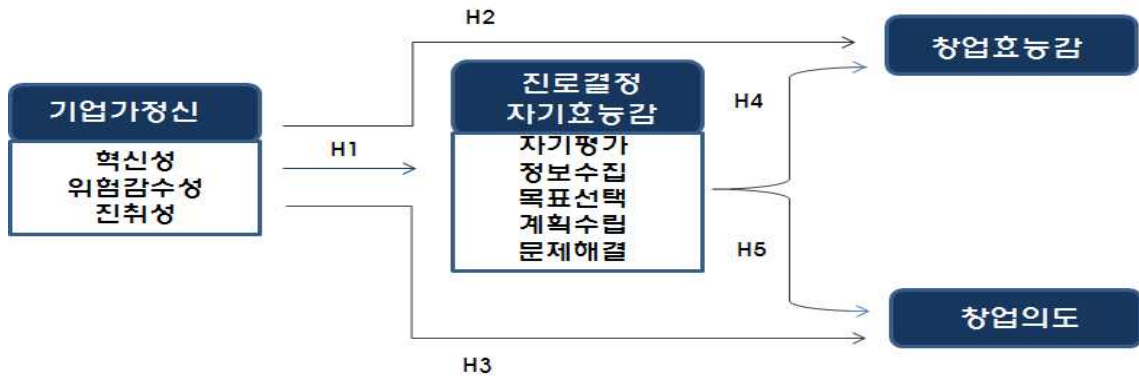
Shapero and Sokol(1982)은 창업행동모델에서 창업의도는 욕구 인지(Perception of desirability), 타당성 인지(Perception of feasibility), 기회를 잡으려는 행동성향(Propensity to act)으로부터 나오며, 주변환경의 변화라는 어떤 유발사건(Trigger event)이 개인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창업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욕구 인지는 창업 전망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타당성 인지는 사업을 개시할 역량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Krueger, 1993). 행동성향은 의도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결정에 따라 행동하는 개인의 성향을 말한다(이현숙·백민정, 2012). Shapero and Sokol(1982)에 따르면, 관성(inertia)은 다른 관성이 대체(displacement)할 때까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중립적일 수도 있다. 이 중 어느 대체도 개인 인생 기로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을 유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Ajzen(1991)은 행위태도(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주관적 규범 (Subjective norms), 행동 통제력 인지(Perceived behavioral control)에 기반하여 창업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행위태도는 개인이 창업과 같은 어떤 특정한 목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긍정 또는 부정적 가치를 부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준거집단의 찬성과 반대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위 사람들의 믿음 또는 동의로 볼 수 있다. 행동 통제력 인지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것이 자신의 의지적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Krueger, 1993).

III. 연구설계

1. 연구의 모형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1)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가설 1>

초·중·고학생의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정책시사점에서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지원사업인 청소년 비즈쿨 사업 참여학생 1,12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가정신 교육 후에 기업가정신과 진로의식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김진수 외 2인, 2014). 이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이 더욱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될 필요성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비즈쿨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업계고등학생의 진로지도 연구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로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최선정, 2007).

하현정(2007)의 청소년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및 자기효능감 영향관계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이 진로인식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창업교육 참여 여부와 창업 및 진로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창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비참여 학생에 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인식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경목(2013)에 의하면 청소년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특기 및 적성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을 나타낸다. 박윤희(2001)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에서 진로교육을 통하여 진로의사 결정을 위한 선택으로 창업을 인식시키고 창업에 관련된 독립교과를 신설하여 기업가정신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고재운(2006)은 창업교육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마인드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진로선택에 대한 마인드와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창업교육의 참여여부에 따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성과 수업의 준비도는 유의미한 강한 정의 관계를 보이며, 또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도와 수업흥미도가 유의미한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 관계를 보다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이라고 하겠다. 정경희(2016) 등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2)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가설 2>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 Yoo(2013)는 심리적 특성인 위험감수성, 진취성, 내적 통제위치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효능감의 선행변수임을 밝혔으며, 김해룡(2008)은 창업효능감과 개인의 성격특성 사이에는 여러 상관관계가 있는데, 성격특성 중 개방성과 성실성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적 요인으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창업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창업교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과 지식을 갖추 수 있으며, 훗날 실질적인 창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을 주기 때문이다(Debackere & Veugelers, 2005).

창업효능감은 창업을 계획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행동이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치고(McGee et al., 2009),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인정되어 왔다(Krueger et al., 2000).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자가 되겠다는 결심이나 창업의지가 높으며,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창업효능감이 창업의지의 강력한 선행변수임을 입증한 연구는 많다(Zhao et al., 2005; Lee et al., 2011).

직접적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과의 관계 연구를 보면 대학생의 창업기획인식의 매개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고(강재학, 2016; 강재학·양동우, 2016),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의도와 영향 관계 연구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권순봉, 2013). 그밖에도 이와 관련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있다(권명규·양해술, 2016; 정대용·김재형, 2015; 진주형·박병진, 2014).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가설 3>

조병근(2013)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창업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박남규(2015)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와 의 관계에서 3가지의 요소가 모두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재학(2016)은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결과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을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김택수(2016)는 기업가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자는 여자에 비하여, 중년층은 청년층이 비하여, 창업경력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창업의지에 높은 영향 준다는 것을 조사하였다. 김정곤(2017)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정부정책 및 창업공모전 참여동기 간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기업가정신을 함양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교육과 창업의도간의 연구에서도 유의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최옥희 외, 2017; 이무선·하규수, 2016; 권명규·양해술, 2016)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설 4, 5>

이보람(2016) 등은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교육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정미경(2015)은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그밖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들로는 대학생 부모의 진로행동유형과 진로정체감(이현주, 2014), 진로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진로결정 수준(김이지 외, 2011), 진로결정수준과 학교생활만족도(박종명, 2017)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또는 부모특성과 진로 관련 결과변수와의 매개효과 연구들로 파악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정신 및 창업효능감,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홍혜영(2017)은 기업가정신과 진로태도 성숙도와 창업의도 관계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고, 박재희(2008)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도와 진로인식 모두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정정희(2016)는 창업교육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경력의도 관계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규명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또는 창업의도와의 직접적인 연구주제로 다룬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유사 연구들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다양한 교육특성 또는 개인특성 등 선행변수들과 결과변수들의 매개연구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변수의 측정도구

기업가정신은 Covin & Slevin(1986)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혁신성 5문항, 위험감수성 5문항, 진취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와 Voyten(1997)이 개발한 척도(CDMSES: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cale: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하위 5개 요인은 직업정보수집, 목표설정, 계획수립, 문제해결, 자기평가등으로 각각 5개 문항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이 개발한 단일 항목 6개 문항, 창업의도는 Jennifer et al(2007)이 사용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측정도구의 구성

변수		문항 수	출처
기업가정신	혁신성	15	Covin & Slevin(1986)
	위험감수성		
	진취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25	Betz와 Voyten(1997)
	진로정보		
	목표설정		
	미래계획		
	문제해결		
창업효능감		6	Wilson et al.(2007)
창업의도		5	Jennifer et al(2007)
인구사회학적 특성		5	

IV. 실증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2〉에서 조사대상 대학생 220명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이 70%, 여성이 30% 순으로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3학년이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학년 31%, 4학년 17%, 1학년 20% 등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35.5%, 이공계열이 35%, 인문계열이 24.1%, 예체능계열이 5.4% 등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155	70
	여성	65	30
학력	1학년	22	20
	2학년	69	31
	3학년	92	42
	4학년	37	17
전공	인문계열	53	24.1
	이공계열	77	35
	상경계열	78	35.5
	예체능계열	12	5.4

2.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표 3〉에 각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이 60% 이상이며 문항의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이 0.6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 및 집중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응답의 내적 일관성 수준을 파악한 결과, 크론바하 알파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 각 변수의 타당성과 타당성

구성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혁신성1	0.615	0.152	0.275
혁신성2	0.645	0.186	0.320
혁신성4	0.832	0.134	0.040
혁신성3	0.619	0.265	-0.162
혁신성5	0.804	0.121	0.182
위험감수성6	0.161	0.620	0.272
위험감수성7	0.078	0.580	0.263
위험감수성10	-0.014	0.671	0.164
위험감수성9	0.182	0.740	0.074
위험감수성8	0.146	0.850	0.221
진취성13	-0.062	0.229	0.710
진취성11	0.120	0.167	0.810
진취성12	0.133	0.075	0.790
진취성13	0.216	0.077	0.733
진취성14	0.311	0.141	0.840
Eigen Value	7.025	3.551	1.467
분산설명비율(%)	32.350	18.238	12.745
누적분산설명비율(%)	32.305	50.588	63.333
Cronbach' a	0.730	0.712	0.810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구성변수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정보수집1	0.750	0.130	0.120	0.110	0.178
정보수집2	0.812	0.280	0.282	0.221	0.210
정보수집4	0.710	0.314	0.146	0.156	0.182
정보수집3	0.740	0.226	0.062	0.122	0.146
정보수집5	0.812	0.132	0.120	0.125	0.162
목표설정1	0.181	0.770	0.150	0.181	0.181
목표설정2	0.094	0.721	0.232	0.094	0.094
목표설정3	0.120	0.823	0.133	0.112	0.120
목표설정4	0.282	0.841	0.160	0.242	0.282
목표설정5	0.146	0.792	0.245	0.144	0.146
계획수립2	0.062	-0.020	0.850	0.214	0.062
계획수립3	0.120	0.140	0.822	0.120	0.125
계획수립1	0.133	-0.050	0.811	0.133	0.156
계획수립4	0.216	0.074	0.768	0.216	0.216
계획수립5	0.311	0.122	0.866	0.311	0.351
문제해결1	0.146	0.250	-0.008	0.750	0.128
문제해결2	0.062	0.322	-0.055	0.812	0.282
문제해결3	0.120	0.236	0.133	0.710	0.146
문제해결5	0.181	0.185	-0.065	0.740	0.132
문제해결4	0.094	0.162	-0.078	0.812	0.220
자기평가1	0.120	0.078	0.224	0.127	0.750
자기평가2	0.282	-0.014	0.180	0.231	0.812
자기평가3	0.146	0.182	0.167	0.240	0.710
자기평가4	0.062	0.146	0.185	0.223	0.740
자기평가5	0.120	-0.062	0.251	0.122	0.812
Eigen Value	5.740	4.789	2.657	1.836	1.490
분산설명비율(%)	28.650	25.364	17.315	9.630	6.190
누적분산설명비율(%)	28.650	54.014	71.455	81.085	87.275
Cronbach' a	0.870	0.833	0.810	0.835	0.807

구성변수	요인1	요인2
창업효능감	0.815	0.140
창업효능감	0.735	-0.092
창업효능감	0.820	0.164
창업효능감	0.776	0.233
창업효능감	0.811	0.2.32
창업효능감	0.761	0.150
창업의도	0.121	0.740
창업의도	0.235	0.785
창업의도	0.129	0.820
창업의도	0.260	0.814
창업의도	0.147	0.800
Eigen Value	5.030	3.875
분산설명비율(%)	52.650	29.998
누적분산설명비율(%)	52.650	82.648
Cronbach' a	0.842	0.750

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검토하였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창업교육 간에는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 < 0.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기업가정신			진로결정					창업 효능감	창업 의도
	혁신	위험	진취	자기	진로	목표	미래	문제		
기업가정신	혁신성	1								
	위험감수성	.335**	1							
	진취성	.430**	.387**	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자기평가	.364**	.440*	.459*	1					
	진로정보	.469**	.370**	.521**	.445**	1				
	목표설정	.388**	.432**	.380**	.470**	.572**	1			
	미래계획	.433**	.530*	.470**	.422**	.337**	.385**	1		
	문제해결	.350**	.341**	.436**	.356**	.432**	.330**	.452**	1	
창업효능감	.560**	.441**	.410**	.421**	.350**	.511**	.451**	.466**	1	
창업의도	.487**	.371**	.359**	.460**	.462**	.422**	.390**	.374**	.370**	1

*: $P < 0.05$ **: $P < 0.01$ ***: $P < 0.001$

4. 가설검증

1)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관계 가설

<표 5>에서 <가설 1>의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50.7%으로 나타났고 $p < .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에서는 혁신성(.480), 위험감수성(.245), 진취성(.463)이 모두 신뢰수준 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5>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회귀분석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332	4.930	.000
혁신성	.480	3.501	0.000***
위험감수성	.245	2.236	0.038*
진취성	.463	2.622	0.000***
R2 = .507 F = 48.221 Sig = .000***			

*:P<0.05 **P<0.01 ***:P<0.001

2)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관계 가설

<표 6>에서 <가설 2>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이 52%로 나타났고 $p < .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에서는 혁신성(.420), 위험감수성(.396), 진취성(.424)이 모두 신뢰수준 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표 6>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회귀분석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877	8.980	.000
혁신성	.420	7.652	0.000***
위험감수성	.396	6.323	0.000***
진취성	.424	7.688	0.000***
R2 = .520 F = 34.653 Sig = .000***			

3)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관계 가설

<표 7>에서 <가설 3>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대한 설명력이 43.3%로 나타났고 $p < .001$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변수에서는 혁신성(.413), 위험감수성(.460), 진취성(.422)이 모두 신뢰수준 내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7>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회귀분석

독립변수	B	t	Sig
(상수)	1.885	8.320	.000
혁신성	.413	7.681	0.000***
위험감수성	.460	7.960	0.000***
진취성	.422	7.643	0.000***
R2 = .433 F = 51.146 Sig = .000***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 8>에 제시된 조건들을 분석하였다.

<표 8> 검증 조건

회귀식	조 건
① $X_2 = \alpha_1 + \beta_1 X_1$	회귀식 ①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1 이 유의해야 한다.
② $Y = \alpha_2 + \beta_2 X_1$	회귀식 ②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2 가 유의해야 한다.
③ $X_2 = \alpha_3 + \beta_3 X_1 + \beta_4 X_2$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β_4 가 유의해야 한다.

(X1 : 독립변수, X2 : 잠정적인 매개변수, Y : 종속변수)

<표 4-8>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은 회귀식 ②에서보다는 회귀식 ③에서 더 작아진다($\beta_2 > \beta_3$). 회귀식 ③에서 매개변수가 투입되어 종속변수(Y)에 대한 독립변수(X1)의 영향력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이는 잠정적인 매개변수(X2)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강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에서 <표 10>을 보면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보면, β_1 , β_2 , β_4 의 값이 각각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β_3 값도 β_2 의 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개효과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와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표 9>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β_1	β_2	β_3	β_4	Result
혁신성→진로결정→창업효능감	0.480***	0.420***	0.113***	0.431***	지지
위험감수성→진로결정→창업효능감	0.245*	0.396***	0.118***	0.408***	지지
진취성→진로결정→창업효능감	0.463***	0.424***	0.120**	0.455***	지지

〈표 10〉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가설	β_1	β_2	β_3	β_4	Result
혁신성→진로결정→창업의도	0.480***	0.413***	0.245***	0.424***	지지
위험감수성→진로결정→창업의도	0.245*	0.460***	0.169**	0.388**	지지
진취성→진로결정→창업의도	0.463***	0.422***	0.283**	0.401***	지지

V. 결 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다양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어느 정도 창업인식의 변화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서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양자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가정신과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 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모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모두 채택되었다.

2. 시사점 및 한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교과부 등에서는 진로학습 강화 및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역시 2018년부터 의무교육을 추진하여 2020년에 전국 초중고에 의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서 본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 교육 및 진로교육에 있어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즉, 기업가정신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진로인식변화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두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대학생의 진로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대학생의 진로선택 변화에 기업가정신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 등의 창업에 대한 인식변화 또는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교육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시행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기업가정신 교육만을 강화하기 보다는 진로변화학습체

계와 연계한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강화하고 창업에 대한 강한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창업의도를 강화하는 완결적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자연스럽게 진로교육과 연계되고 나아가 창업에 대한 열망으로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도의 선행변수들을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만을 가지고 분석한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선행변수들을 다양화한 연구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변화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각종 정부간행물 및 연구보고서 포함)

- 국무총리실 (2015),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중소기업청(2010), 「청소년 직업관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
- 중소기업청(2013),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 중소기업청(2015), 「벤처·창업 붐 확산 계획」

(2) 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단행본에 포함된 개인 저술 포함)

- 고영하 (2016), “진로개척과 기업가정신의 의미”, 「한국진로교육학회」 5: 1-19.
- 장재학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논문
- 김병숙·손민아 (2005). “진로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자기효능감 효과 분석”, 「진로교육연구」, 18(2): 172-198.
- 김성환·북경수·박재춘 (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영환·양대용 (2013), “기업가정신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 김용호 (2013), “청소년의 신문활용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진로인식 및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선 (2016),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 김재형 (2016), “창업실패관련 평가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희철·김창완 (1995),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지」, 17(2): 141-167.
- 박윤성·김태형 (1991). “조직특성과 개인별 혁신운동과의 지각차이”, 「경영학연구」, 25: 1761-194.
- 심정호 (2016), “무용전공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박사논문
- 송광선 (1995). “기술혁신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지」, 17: 169-192.
- 이동기 (2000). “혁신확산의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317-332.

- 이승배·서철승·유왕진 (2016), “창업과 기업가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의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공학회, 21(4): 173-192.
- 이우진 (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과 직업선택의 동기가 학생들의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이은경 (2001),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장우·김태형 (1997), “조직혁신 성과의 영향요인”, 한국인사·조직학회(편), 서울: 다산 출판사.
- 이재은·강지원 (2016), “청소년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8: 024-1043.
- 이현주 (2000).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따른 인지양식 차이”, 「교육학 연구」, 38(1): 235-257.
- 이혜진·황인호·김진수 (2016),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7(.): 698-709.
- 이혜영 (2006), “공공부문 조직혁신 사례연구-혁신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3): 129-151.
- 왕재선·김서용 (2009), “조직혁신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43(3): 73-99.
- 정대용·채연희 (2016),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한경영학회지」, 29(3): 467-488.
- 조명실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 최만기·이지우 (1999), “조직혁신에 관한 연구모형의 개발과 연구명제의 설정”, 「경영학 연구」, 27(5): 1331-1360.
- 최민정 (2016), “소상공인 창업교육이 기회인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과 조절 초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최양란 (2016), “지역대학생의 청년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개척과 기업가정신의 의미”, 「한국비교정부학보」, 20(2)
- 채연희 (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 Barber, John M. (1999), “Creating an Anglo-Saxon Innovation Culture”, in Susanne Bühner and Stefan Kuhlmann (eds.), *Evalu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New Europe : Proceedings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7 and 8 June 1999*, Karlsruhe, Germany: Fraunhofer ISI, 33-44.

- Baldrige, J. V. & Burnham, R. (1975), "Organizational Innovation: Industrial,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Impa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0: 165-176.
- Daft, R. L. (1978), "A Dual Core Model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1: 193-210.
- _____. (1982). "Bureaucratic versus Nonbureaucratic Structure and the Process of Innovation and Change", In S. B. Bacharach (Ed.),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1: 129-166. Greenwich, CT: JAI Press.
- Damanpour, F. (1998), "Theorie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Innovation Adoption: the Role of Environmental Change",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5: 1-24.
- Glynn, M. A. (1996), "Innovative Genius: A Framework for Relat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Intelligences to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4): 1081-1111.
- Hage, J. & Aiken, M. (1967), "Program Change and Organizational Properties,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2: 503-519.
- Hyun, S. (1996), "Taxonomy of the Theories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A Comparison of Two Perspective", The Paper Presented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Fall Conference.
- Jennifer, S. Stephen, L. Mueller, J. & McGee, E. (2007), "The Influence of Social Ties and Self-Efficacy in Form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Motivating Nascent Behavior",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2(3): 262-284.
- Kimberly, J. R. & Evansko, M. J. (1981), "Organizational Innovation: The Influence of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Contextual Factors on Hospital Adoption of Technological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 689-713.
- Meyer, A. D. & Goes, J. B. (1988), "Organizational Assimilation of Innovations: A Multi-level Contextual Analysi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1: 897-923.
- Pierce, J. L. & Delbecq, A. L. (1977), "Organization Structure, Individual Attitude and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 27-3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Timmons, J. A. (1994), *New venture creation*. Burr Ridge, IL: Irwin.
- West, M. A. & Farr, J. L. (1989), "Innovation Work: Psychological Perspective",

Social Behavior, 4: 15-30.

Wilson, F., Kickul, J., & Marlino, D.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Zhao, H., Seibert, S., & Hills, G. E.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